

# 생활체육 기지가...강진서 20일 게이트볼대회

전남 6개 군 23개팀 참가  
게이트볼 저변 확대 기여  
방역 철저 등 준비 만전

강진군이 6개 군 초청 게이트볼대회를 시작으로 생활체육 기지개를 연다.  
강진군은 20일 강진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구장에서 '2020년 6개 군 초청 친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강진군을 비롯해 해남·완도·진도·장흥·영광 등 6개 군에서 23개 팀, 18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 방식은 4개 코트에서 23개 팀이 A·B조로 나눠 예선 리그전을 펼친 뒤 조별 1~4위까지 총 8개 팀이 결승 리그에 진출해 승부를 가린다.

게이트볼은 힘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 사회에 각광받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동호인들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6개 군 초청 대회 개최를 통해 게이트볼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방역물품 및 방역 대상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의 경기를 치르지 못했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철저한 방역 등 경기장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식당·숙소 친절도 향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난해 강진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구장에서 열린 6개 군 초청 게이트볼 대회. <강진군 제공>

# 고교야구도 6월 11일 새로운 시즌 연다

황금사자기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개막  
청룡기 7월 23일·대통령배는 8월 8일  
프로야구에 이어 고교야구도 6월 11일 새로운 시즌을 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용웅·KBSA)가 2020년도 전국야구·소프트볼 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늦어진 고교야구는 제74회 황금사

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대회는 11일 개막해 22일까지 12일간 목동 야구장과 신월야구장에서 열린다.  
2020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일정은 6월 20일 시작, 7월 26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치르지 못한 주말리그 전반기 경기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소화한다.  
청룡기와 대통령배 야구대회는 각각 7월 23일과

8월 8일 개막하는 등 고교 야구 일정이 확정됐다.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는 7월 1일 경주에서 개막한다.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7월 25일 부산 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일정은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일에 대한 연기 결정과 대한체육회로부터 전달받은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전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KBSA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학생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등교 정상화 시점(고2 등교일)을 기준으로 단체 훈련 기간(14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회 개시 일정을 정했다.  
고1 선수는 6월 17일 이후 경기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별도의 정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KBSA는 대회 관리자 또는 참가자의 역할과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운영과 관련한 기준 등을 위해 '2020 전국야구·소프트볼대회 대응 지침'도 마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수난의 즐라탄 동상, 말피에 남을 듯

라이벌 클럽 지분 인수에  
화난 말피FF 팬들이 훼손  
부시장 "즐라탄은 말피의 아들"



라이벌 클럽인 함마르뷔의 지분 인수에 화난 말피FF 팬들이 훼손한 즐라탄의 동상. /연합뉴스

코가 잘리고 발목이 꺾이는 수난을 당해 절거던 '축구스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9·AC밀란)의 동상이 결국 스웨덴 말피에 남을 전망이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간) "스웨덴 말피시의회 의원들이 18일 말피FF의 홈구장 외곽에 설치된 이브라히모비치 동상의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논의했다"라며 "결국 동상은 말피시에 남겨졌다. 다만 정확한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웨덴 말피에서 태어난 이브라히모비치는 1999~2000시즌 말피FF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뒤 아약스(네덜란드), 유벤투스(이탈리아), FC바르셀로나(스페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등 세계적인 명문 클럽에서 골잡이로 활약해왔다. 이번 시즌에는 AC밀란에서 뛰고 있다.  
스웨덴축구협회는 스웨덴 최고의 축구스타인 이브라히모비치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조각가 피터 린드에게 맡겨 4년에 걸친 작업 끝에 지난해 10월 공개됐다.  
높이 3m, 무게 500kg에 달하는 동상은 이브라히모비치가 데뷔한 말피FF 홈구장 외곽에 설치됐다.  
하지만 동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코 부위가 잘려나가고 발목 부위가 톱으로 잘려 쓰러지는 붕괴를 당했고, 지난 1월 철거돼 비밀 장소에 보관됐다.  
팬들이 동상을 습격한 이유는 이브라히모비치가 말피FF의 라이벌 클럽인 함마르뷔의 지분을 인수

해서다.  
결국 말피시의회는 동상의 이전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결국은 말피시에 남기기로 했다.  
프리타 트롤미르 말피시 문화체육 담당 부시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동상은 말피시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말피의 아들이다. 여기가 그의 고향"이라며 "이제 동상을 설치할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았다. 최종 결정은 6월에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피 시민들은 이브라히모비치 동상에 대해 29건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동상을 스톱숍에 있는 함마르뷔의 홈구장인 텔레2 아레나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250여 명의 지지를 얻었고, 8700여명의 시민은 말피FF 홈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내들이야! 19일 2개월여 만에 재개된 분데스리가 브레멘과 레베쿠젠의 경기에서 브레멘의 에게 슈타인과 레베쿠젠의 바움가르트링거가 볼을 다루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6월 27일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를 계획으로 각 팀들은 8~10경기를 남겨 놓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제 슈퍼맨 아닌 '원편맨'? NBA스타 하워드 이색 홈트 만화 주인공 훈련법 따라해 화제

일본 만화 팬들은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드와이트 하워드(35·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를 앞으로 '원편맨' 하워드라고 부르지도 모른다.  
미국 스포츠매체 SB네이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팀 훈련이 금지된 기간 하워드가 해온 특별한 개인훈련 프로그램을 19일(한국시간)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하워드는 매일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스쿼트를 100개씩 하고 유산소 운동을 했다.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로 전 구단 훈련시설이 폐쇄된 뒤부터 LA 레이커스가 훈련시설을 재개장한 지난 16일까지, 하워드는 구단이 제공한 훈련 프로그램 외에 이런 '개인 특훈'을 별도로 소화했다.  
이는 만화 '원편맨'의 주인공 사이타마가 하는 훈련법을 하워드가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사이타마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스쿼트를 100개씩 하고 10km를 달리는 훈련을 매일 3년간 반복해 엄청난 강인한 신체를 갖게 된다.  
제목인 원편맨은 주먹질 한 방에 모든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이타마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워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외 훈련을 자제했기 때문에 10km 달리기만 실내 유산소 훈련으로 바꿨을 뿐, 나머지 프로그램은 사이타마를 그대로 따라 했다.  
하워드는 최근 스포츠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편맨 훈련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워드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건, 내가 어떤 기분인건 매일 원편맨처럼 훈련하면서, 훈련 자체부터 식단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대한 규율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워드는 '만화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 LG배 바둑 32강 대진 확정 신진서, 판원휘와 온라인 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개막하는 메이저 세계 바둑대회인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대진이 확정됐다.  
한국기원은 19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LG배 32강 대진 추첨 결과 한·중전 9판, 한·일전 5판, 한국·대만전 2판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국내 바둑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신진서 9단은 32강에서 중국랭킹 11위 판원휘 8단과 맞붙게 됐다. 자국 랭킹에서는 신진서가 월등히 앞서지만,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3승 4패로 열세를 보였다.  
지난 대회 준우승자 박정환 9단은 일본 용성 타이틀 보유자인 이치리키 료 8단과 대결한다. 상대 전적은 박정환 9단이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김지석 9단은 중국의 탕웨이싱 9단과 16강 티켓을 다툰다.  
둘은 2014년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맞붙어 김지석 9단이 2-0으로 승리했다.  
통산 상대 전적은 5승 5패로 동률이다.  
외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한 최정 9단은 중국랭킹 12위 자오천위 8단과 붙는다.  
최정은 자오천위와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국내 프로기사 중 메이저 세계대회 본선에 처음 오른 설현준 5단과 박건호 4단, 김상현 2단은 각각 중국 랭킹 2위 양딩신 9단, 1위 쵸제 9단, 4위 구즈하오 9단 등 모두 세계 챔피언 출신의 강자와 맞붙는다.  
LG배 32강전은 내달 1~3일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다.  
세계 메이저 기전에서 인터넷 대국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클라우디오 몬테벨로 감독  
올리비아 콜맨 주연  
콜오브와이드  
5월 14일 개봉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루키스
3관	카페 벨레포크, 마이 스파이, 라스트 폴 메저
4관	더 플랫톱
5관	오퍼나지: 비밀의계단, 시간을 달리는 소녀
9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7관	씨네캐슬 통보이, 콜 오브 워워드, 호텔 레이크
8관	레이나 데이 인 뉴욕, 하이리!!! 또 다른 도전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보이콧, 킬러의 보디가드 무식제 특별판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2020. 5.27.(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